

12월19일(월)/히10:1~18(1)

제목: 거룩을 받은 사람들

해마다 같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반복해서 제물을 바치는 일은 중단되었을 것이고 제사도 단 한번으로 끝났을 것이다(1~2절). 제사는 그만큼 불완전한 제도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는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한다(7~9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불완전한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오신 분임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예수님은 새 제도를 세우려고 옛 제도를 폐지하셨다.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을 얻게 되었다(10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말씀에서 ‘얻었다는 말은’ 받았다는 말이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받는 것이다.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고대의 수도사들은 ‘거룩’을 얻기 위해 엄청난 수행을 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거룩’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힘들이지 않고 앉아서 믿음으로 ‘거룩’을 얻는다.

12월20일(화)/히10:1~18(2)

제목: 앉아 계시는 예수님.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다(11절).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12절).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 하셨다(16절). 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17절).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아예 까먹어 버리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18절).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선언은 유대인에게는 폭탄과 같은 충격이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12절). 여기서 ‘앉으사’라는 동사는 11절의 ‘서서’라는 동사와 대조된다.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했기 때문에 계속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번으로 죄를 끝내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즉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끝내시고 앉아 계시게 되었다. ‘앉아 계시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확신을 가지게 된다. ‘앉아 계시다’는 말 속에 예수님의 단 한번의 제사가 어느 정도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2월21일(수)/히10:19~25

제목: 믿는 도리를 저버린 이단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한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찬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늘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하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을 베풀며,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힘써 모임을 가져야 한다(22~25절). 여기서 크리스찬의 중요 직무 중 하나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일이다(23절).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가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성서의 해석을 가리킨다. 희생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은 교회의 공식적인 성서 해석을 믿는 일이다. 이것이 도리이다. 크리스찬은 ‘도리’를 벗어나면 안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단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렸다. 이단은 사도시대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공식적인 성서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도리를 저버린 그들에게 무슨 예수님의 피 공로가 남아 있었는가?

12월22일(목)/히10:26~31

제목: 하나님의 무서운 손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를 저버리는 반역자들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따른다고 한다. 첫째, 반역자에게는 속죄의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26절).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 용서도 거절된다는 것이다. 둘째, 맹렬한 불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27절).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무서운 벌을 받는다고 한다(28~29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수로 여기신다고 까지 하였다(29절).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인가? 안 믿는 자이다.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을 원수로 여기시고 그 원수를 반드시 갚으신다(30절).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진리를 거역하는 반역자의 대열에 서서 원수를 갚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한다(31절).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가지고 계시다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손은 의인을 구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악인을 치시는 손이기도 하다.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손과 늘 친해져야 한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다른 쪽 손아래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다.

12월23일(금)/히10:32~39

제목: 구경거리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며 고난의 현실을 감내했던 수신자들의 옛 시절의 신앙심을 상기시켰다(32절). 좋았던 그 옛 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면 그들에게 큰 용기가 생기리라 믿었다. 그리고 더 나은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하였다(35절).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고난의 현실을 버티어내는 의인이 되라고 하였다(36~37절).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한 때 모욕과 환난을 당하였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기쁘게 그것을 당했던 때가 있었다. 33절의 “구경거리가 되다” 라는 말은 “무대로 데리고 가다” 는 뜻이다. 로마가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원형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관중석에서 구경했다. 오늘날에도 크리스찬은 많은 시기와 조롱을 받는다. 기독교에 약간의 실수나 흠이라도 드러나면 세상은 기독교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어한다. 세상은 우리를 무대 위에 올려놓고 수치를 주고 싶어한다. 이러한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구경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